

불법 도박시장 규모 100조...패러다임의 전환 절실하다



600조원대 아시아 도박시장의 맹주 홍콩 사행산업 양성화로 스포츠·게임산업 활성화 촉진·총량제·환급률 등 정책개선도 필요 '범죄수익환수제 활용' 제재 실효성 높여야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 뒤로 10년이 흘렀다. 그간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시장은 연간 101조~160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비대화됐고,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집중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의 한낱 하수인이 수익금을 간수할 곳이 없어 마늘밭에 은닉한 돈이 70억원에 이를 정도이고,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햇밭질해 승부를 조작하는' 한심한 운동선수들도 생겨날 정도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합법 사행산업의 총량만을 규제하는 1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비대화된 계기는 매우 간단하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체육진흥투표권) 발매는 총량규제의 제약에 묶여 고작 몇 분 만에 마감됐다. 월드컵 배팅을 향한 국민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합법 스포츠도박은 스스로 불법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기 홍콩은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600조원에 이르는 아시아 도박시장의 맹주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외국의 대형 배팅업체에 밀려 합법 사행산업까지도 사장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얻은 천문학 적 수입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고, 상당수는 국외로 빼돌려져 자금세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스포츠 배팅은 '도박' 또는 '중독'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해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 최근 급성장한 스포츠도박의 주변에는 스포츠산업, 게임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통신산업, 전자금융업, 전자상거래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 경제와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新)산업일 수 있고, IT 강국인 우리 기술을 활용해 세계 도박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법 도박 자체에 대해서 단호

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 콘텐츠인 스포츠도박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첫째, 총량 합법 시장에만 천착되었던 총량관에서 탈피해 불법 시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합·불법 통합 매출 총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 도박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시장을 합법 시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불법 시장과 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도록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 시장 및 해외 시장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세제, 환급률이나 배팅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셋째, 모바일 시장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정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온라인 불법 도박을 양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법 도박을 전담하는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도박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전통적 형벌 외에도 범죄수익환수제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10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도박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젊은이, 일확천금 외에는 희망이 사라진 장기취업준비생과 실직·퇴직자,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재력가, 안전한 비대면 범죄대상을 찾는 범죄자들에게 불법 도박보다 나은 놀거리, 일자리, 투자처를 찾아주지 못한다면 어떤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들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을 잘못 다루면 화재라는 재난을 초래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인류문명이

진보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도박도 이를 잘못 다루면 폐가망신과 망국을 초래할 수 있지만, 넘치는 도박 수요를 그 저변에 깔린 스포츠와 게임,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해낼 수 있다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련 산업을 부흥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석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경력=2004년 법무부 전문위원, 2012년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2014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연구분야=자금세탁, 조직범죄, 부패, 지하경제, 불법도박, 범죄피해자 등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연중 캠페인

SAC (Stop&Clean)

Stop & Clean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및 부정경기 추방! | 정당당당하고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 정착!

▶▶▶ 불법 스포츠도박 및 부정경기 SAC(쌩!) '짝' 추방합니다

▶▶▶ 건전한 스포츠·레저문화의 '짝'을 틈을시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1899-1119 (www.cleansports.or.kr)
한국야구위원회 공정센터 02-3460-4699 (www.koreabaseball.com)
대한축구협회 신고센터 singo@kia.or.kr(www.kfa.or.kr)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린센터 02-2002-0691 (www.kleague.com)
한국농구연맹 클린바스켓센터 02-543-2288 (www.kbl.or.kr)
한국여자농구연맹 핫라인 080-077-0909 (www.wkbl.or.kr)
한국배구연맹 클린센터 02-6393-5408 (www.kovo.co.kr)

스포츠도만 '합법', 나머지는 '불법'

지난해 '세기의 대결'로 불린 프로 복싱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9·미국)와 매니 파퀴아오(38·필리핀)의 경기는 전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이런 빅매치에 빠지지 않는 기사 중 하나가 도박사들의 배팅 판세다. 프로스포츠의 빅매치에는 항상 도박사들의 배팅 이야기가 뒤따른다. 이처럼 프로스포츠와 도박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국내에서 건전한 배팅 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스포츠도도다. 스포츠도도에는 2001년 도입된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의 명칭이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점수대에 일정 금액을 건 뒤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는데, 2000년대 들어 스포츠를 즐기는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무분별한 배팅을 근절

하기 위해 1인당 주 1~2회 배팅이 가능하고, 금액 또한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도도 외에 사실상 운영되는 스포츠도박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포츠도도도 달리 불법 스포츠도박에선 한 번에 수백만 원의 판돈이 오간다. 배팅 방법도 다양하다. 승패와 점수대뿐 아니라 첫 득점, 첫 홈런(야구), 첫 3점슛(농구) 등 경기 중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배팅이 가능하다. 또 사이트 접속 시 본인,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접근이 가능해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등록해 무제한적으로 배팅할 수 있다. 성인 인증 절차가 없으니 청소년도 접근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에



불법 스포츠도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달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캠페인 'SAC(Stop & Clean)'을 펼치고 있는 스포츠도도에서는 24일 잠실야구장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사인회를 열었다. 사인회에는 투수 베이스 정수빈과 허경민이 참석했다.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중독된 중·고교생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은 접근성까지 좋아졌다. 컵

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수시로 접속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동이 잦은 연예인, 스포츠스타들까지 연루되는 일이 잦아졌

다. 어느새 불법 스포츠도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달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 | 정지호 기자 stop@donga.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PSA 한국프로스포츠협회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도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dongA.com CHANNEL 후원 : KBO 한국야구위원회 KFA 대한축구협회 K LEAGUE KOVO 한국농구연맹 KDL 한국배구연맹 WKBL 한국여자농구연맹 KPPA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냉장고셔츠 이거 하나면 올 여름 끝!

국내산 기능성 냉감티셔츠 5종 39,800원

색상: 화이트, 블루, 오렌지, 네이비, 블랙

▶▶▶▶▶ **땀은 내쉬고 공기를 마시는 흡산속건성 티셔츠, 자외선 차단 및 세균 및 각종 유해균 걱정 끝!**

국내생산 100% 기능성 냉감티셔츠는 강력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 수분을 최대한 빨리 밖으로 배출하고, 무더운 여름철 땀수분으로 발생하는 체온 상승효과를 억제함으로써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항상 끈적임 없이 상쾌함을 유지시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세탁시에도 건조시간을 최소화하여 세탁 후 바로 착용이 가능할 정도의 건조성이 좋고 오염 물질도 간단한 세척으로 제거가 쉽다. 마치 안입은 듯 한 착용감과 물에 뜰 정도로 가벼운 초경량 소재 사용으로 입는 순간부터 시원한 착용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100% 국내생산으로 품질이 뛰어나며 초경량 소재 사용으로 입는 순간부터 시원한 착용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제품 불만족시 일주일 이내 100%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

사이즈 95, 100, 105, 110 티셔츠5종 ₩149,000 → ₩3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플룩스(이상재)

반바지 입고 출근할 수 없다면 이 바지를 입자!

땀과 열기는 싹~ 쿨링 바지 1+1 49,800원

색상: 네이비, 그레이, 블랙

기능성·스타일·활용성 모두 겸비! 남성들에게는 미관상 또는 예의상의 이유로 사회활동시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이러한 남성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시원한 여름 쿨링 바지는 시원한 원단을 적용하여 땀은 흡수후 빠르게 건조시키고,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으며 스판 소재로 정장용-레저용-일상복으로 모두 입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일반 바지보다 활동성이 뛰어나다. 허리부분에 주름밴딩 장치로 숨쉬는 바지 기능을 추가하여 30~70대 남성들에게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 신축성이 좋고 갈수록 습한 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계절 변화에 딱 맞는 상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균과 땀 냄새까지 억제하는 시원한 여름 쿨링 바지는 한여름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분들, 등산·낚시·골프 등 야외스포츠를 즐기는 남성분들에게 더욱더 안성맞춤인 바지이다.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플룩스(이상재)